통일화보

주체112(2023)년
(9 — 10월)
5호

특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을 조국청사에 특기할 대정치축전으로 빛내주시여

조로친선의 강화발전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대외혁명활동

통일화보

주체112(2023)년 5호 (9－10월)

특 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을 조국청사에 특기할 대정치축전으로 빛내주시여 4

절세의 위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북중기계련합기업소와 중요군수공장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36

주체적해군무력강화의 새시대, 전환기의 도래를 알리는 일대 사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새로 건조한 잠수함 진수식 성대히 진행 40

조로친선의 강화발전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대외혁명활동 4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6차 정치국회의 진행 86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로씨야련방방문을 수행한 대표단성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8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90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로씨야련방 외무상을 접견하시였다 92

조국소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을 온 나라가 성대히 경축 94

조선로동당창건 78돐에 즈음하여 108

애국의 구슬땀이 안아온 풍요한 농사작황 112

너도나도 발명가, 창의고안명수로 116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황금나락》 식료품 120

가을철녀성옷을 계절적특성에 맞게 124

기쁨과 랑만이 출렁, 즐거움과 희망이 두둥실 130

태권도강국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친 장한 아들딸들 134

인물소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를 창작한 조선의 음악대가 138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라 소리높이 구가한 열정의 시인 142

슬기로운 우리 민족

개천절행사 진행 152

- -

이것이 《한미동맹》의 실체이다 146

■ 앞표지: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민방위무력열병식

■ 뒤표지: 금강산의 가을

편 집: 리대성, 정철성

무궁토록 번영하라
위대한 우리 조국이여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 은금에 자원도 가득한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반만년 오랜 력사에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슬기론 인민의 이 영광
몸과 맘 다 바쳐 이 조선 길이 받드세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슬기론 인민의 이 영광
몸과 맘 다 바쳐 이 조선 길이 받드세
백두산기상을 다 안고 근로의 정신은 깃들어
진리로 뭉쳐진 억센 뜻 온 세계 앞서나가리
솟는 힘 노도도 내밀어 인민의 뜻으로 선 나라
한없이 부강하는 이 조선 길이 빛내세
솟는 힘 노도도 내밀어 인민의 뜻으로 선 나라
한없이 부강하는 이 조선 길이 빛내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 —
주체사상
지상락원

특 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을 조국청사에 특기할 대정치축전으로 빛내주시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중앙보고대회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고대회에 참석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9월 8일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고대회에 참석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로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자주강국의 새시대를 펼치시고 전면적국가부흥의 력사적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우리 국가와 인민의 모든 영광의 상징이시고 위대한 존엄의 대표자이신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따뜻이 답례하시며 주체조선의 공민된 무한한 긍지를 안고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뜻깊게 맞이하는 전체 참가자들과 온 나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중앙보고대회 보고를 김덕훈 내각총리가 하였다.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이 향도하는 자주, 자립, 자위의 길, 사회주의의 한길을 따라 진정한 인민공화국의 자랑찬 력사와 전통을 굳건히 고수하고 빛내이며 전면적국가발전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는 인민의 크나큰 영예와 자부심으로 충만된 보고는 참가자들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의 탁월한 사상과 령도가 있고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대중의 단결된 힘이 있기에 우리 공화국의 앞길에는 자랑찬 승리와 영광, 끝없는 번영이 펼쳐지게 될것이라는 확신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중앙보고대회는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일편단심 충성으로 받들어 우리 국가제일주의기치높이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더욱 억척으로 다지고 빛내이며 주체강국의 광명한 미래를 앞당겨나갈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75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민방위무력열병식 성대히 거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민방위무력열병식이 9월 8일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화국창건 75돐경축 민방위무력열병식에 참석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병대원들과 경축행사참가자들의 열광의 환호에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과 존경하는 자제분을 모시고 리병철원수, 박정천원수와 군부의 지휘관들이 주석단특별석에 자리잡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게양식이 엄숙히 거행되였다.

《빛나는 조국》의 노래주악과 함께 21발의 례포가 발사되였다.

이어 열병식준비검열이 진행되였다.

김정은원수님께 오일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민방위무력열병식이 준비되였음을 정중히 보고올리였다.

인민군대와 함께 공화국무력의 2대기둥이 되여 전민항전의 철저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나가는 강위력한 전투대오인 민방위무력의 장엄한 열병행진이 시작되였다.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천하를 휘여잡으시는 희세의 령장, 사랑과 믿음으로 인민을 한품에 안으시고 승리와 번영의 활로를 여시며 조국의 창창한 앞날을 펼쳐가시는 위대한 **김정은**원수님만을 세월의 끝까지 받들어갈 결의를 담아 열병대원들이 터쳐올리는 신념과 의지의 함성이 광장을 진감하였다.

우리 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전체 인민이 총검을 틀어잡고 전국이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된 강대국의 위상을 힘있게 떨치며 로농적위군의 기계화종대들이 진군을 개시하였다.

우리 혁명무력의 강대함은 천하무적의 정규군과 함께 현대전의 그 어떤 군사작전과 전투도 자립적으로 치를수 있는 위력한 민방위무력을 가진데 있음을 세계앞에 선언하며 기계화종대들이 도도히 광장을 굽이쳐갔다.

그 어떤 적대세력도 감히 넘볼수 없는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억척같이 다지시여 진정한 평화와 후손만대의 영원한 승리와 번영의 만년담보를 마련해주신 절세의 애국자,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은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열병식이 끝나자 경축의 축포와 고무풍선들이 하늘을 뒤덮고 열화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열병광장을 진감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군중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민방위무력열병식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사회주의건설과 국가방위력강화에서 새로운 기적과 승리를 떨쳐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상과 불굴의 투쟁기세를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한 력사적사변으로 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조선민주주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9월 8일 공화국창건 75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류국중 국무원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성원들을 반갑게 맞이하시고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나누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존경하는 습근평주석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에 즈음하여 우리 당과 정부, 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내주고 뜻깊은 기념행사에 당 및 정부대표단을 파견해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중국동지들이 공화국창건기념행사에 참가하여 우리 국경절행사가 더욱 빛나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통하여 습근평주석과 중국당과 정부가 조중관계의 특수성을 매우 중시하고있다는것을 깊이 느꼈다고 하시면서 이에 사의를 표하시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습근평주석이 건강하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위업을 령도하는 중임에서 계속 훌륭한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하시면서 중국인민이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중화의 부흥이라는 원대한 꿈을 반드시 실현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친선적인 담화에서는 조중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를 위한 여러 분야의 협조와 협력사업을 더욱 활성화해나갈데 대하여 견해일치를 보았다.

담화는 시종 동지적우의가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화국창건 75돐 경축행사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9월 9일 공화국창건 75돐 경축행사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성대히 진행된 공화국창건 75돐 경축행사에 참가하여 위대한 우리 국가의 강용한 기상과 무궁창창한 미래를 가슴벅차게 체감한 크나큰 환희속에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꿈결에도 소원하던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게 된 참가자들은 한없는 감격과 기쁨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손저어 답례하시며 드높은 민족적자부와 애국적열의를 안고 공화국창건 75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인 경축행사참가자들과 온 나라 전체 인민과 전군의 장병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경축행사참가자들이 위대한 자주강국의 영광넘친 력사와 전통을 견결히 고수하고 계승하여 전면적국가부흥을 위한 전인민적대진군에서 기적과 혁신의 돌파구를 여는 시대의 기수, 선봉투사의 영예를 변함없이 떨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무한한 감격과 격정에 넘친 환호성이 또다시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헤여지기 아쉬워 솟구치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며 걸음걸음 따라서는 참가자들에게 오래도록 손저어주시였다.

공화국창건 75돐 경축행사참가자들은 주체조선의 승리와 영광의 력사를 민족만대, 혁명만대로 굳건히 이어주시는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을 충성다해 받들어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끝없이 빛내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전위적역할을 다해나갈 억척의 맹세를 다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화국창건 75돐경축 민방위무력열병식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9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민방위무력열병식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비범특출한 사상과 령도, 강철의 담력으로 주체조선의 국력을 최강으로 다져주시며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끝없이 빛내여가시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공화국창건 75돐을 조국청사에 특기할 대정치축전으로 빛내이는데 공헌한 전체 열병식참가자들을 축하해주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병식참가자들이 애국적열의를 안고 열병광장을 보무당당히 행진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우리 당의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방침관철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영예로운 투쟁에서 선봉적, 핵심적역할을 수행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과 《**김정은**》, 《결사옹위》의 신념의 함성이 9월의 하늘가에 메아리쳤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은**원수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인생의 제일재부로 간직하고 천겹만겹의 성새, 제일결사대가 되여 당중앙을 보위하며 전면적국가부흥을 위한 전인민적애국투쟁의 전렬에서 새로운 기적과 승리를 이룩해나갈 불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2023

조선로동당만세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만세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북중기계련합기업소와 중요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북중기계련합기업소와 중요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북중의 로동계급이 당의 국방, 경제건설정책을 높이 받들고 생산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기업소의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현 기술장비실태와 기술개건방향에 대하여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북중기계련합기업소는 나라의 선박공업발전과 우리 해군무력을 강화하는데서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중임을 맡고있다고 하시면서 기업소앞에 선박공업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혁명적투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북중기계련합기업소의 현대화와 나라의 선박공업발전방향에 대하여 앞으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중요한 로선을 제시하게 될것이라고 확신하시면서 우리 당은 북중의 혁명적로동계급을 굳게 믿는다고, 혁명의 년대들마다 투철한 결사관철의 정신을 지니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당의 국방, 경제정책을 앞장에서 관철해온 빛나는 투쟁전통을 가지고있는 기업소의 당원들과 로동계급이 오늘날 우리 혁명의 중차대한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당중앙의 중대결정을 피끓는 심장으로 받아안고 앙양된 투쟁열의로 무조건 화답해나서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중요군수생산공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의 기술현대화진행정형에 만족을 표시하시고 추가적인 생산능력조성과 관련한 방향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무력의 강화에서 공장이 차지하고있는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공장 로동계급이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애국심을 간직하고 실력과 실천력으로 당의 국방발전정책을 받들어나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주체무기들을 더 많이,더 빨리 만들어내자!

주체적해군무력강화의 새시대, 전환기의 도래를 알리는 일대 사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새로 건조한 잠수함 진수식 성대히 진행

우리 당의 혁명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영웅적인 군수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우리 식의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하여 창건 75돐을 맞는 어머니조국에 선물로 드리였다.

첫 수중핵공격함선의 장엄한 탄생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군무력강화의 새로운 장의 서막을 알리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국가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비약적으로 더욱 확대강화해나가려는 우리 당과 정부의 드팀없는 의지가 더욱 선명하게 시위된 잠수함 진수식은 9월 6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당과 정부, 군부 지도간부들의 참석하에 해군 동해함대 지휘관, 해병들, 봉대조선소의 전체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들끓는 환희와 감격속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인민군 해군에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이관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을 리병철원수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라 첫 전술핵공격잠수함 제841호가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관하 해당 수중합전대에 이관되고 《김군옥영웅》호로 명명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조한 잠수함의 이관증서를 해군 동해함대관하 해당 수중합전대장에게 수여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진수식을 축하하는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진수식을 기념하여 당과 정부의 간부들, 해군의 주요지휘관들, 잠수함공장 책임일군들과 함께 력사에 길이 남을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9월 7일 시험항해를 위한 출항준비를 하고있는 전술핵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의 영예의 군기와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함의 무장체계와 잠항작전능력을 료해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잠수함 전체 해병들과 함께 《김군옥영웅》함을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을 앞두고 진행된 전술핵공격잠수함의 진수식은 위대한 **김정은**시대 주체적해군무력의 강화발전사와 국가핵무력건설사에 특기할 력사적 사변으로, 선진해양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에로의 장엄한 출발을 선언한 의의깊은 계기로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지게 될것이다.

841
《김군옥영웅》호
새로 건조한 잠수함 진수식
주체112(2023)년 9월 6일

새로 건조한 잠수함 진수식에서 축하연설을 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지난 수십년간 공화국에 대한 침략의 상징물로 인배겨있던 핵공격잠수함이라는 수단이 이제는 파렴치한 원쑤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위협적인 우리의 힘을 상징하게 되고 그것이 세상이 지금껏 알지 못한 우리 식의 새로운 공격형잠수함이라는 사실은 진정 우리 인민모두가 반길 경사가 아닐수 없습니다.

김 정 은

조로친선의 강화발전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대외혁명활동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 로씨야련방 대통령의 초청에 의하여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로씨야련방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이번 로씨야련방에 대한 공식친선방문은 동지적 우의와 전투적단결에 뿌리를 두고있는 전통적인 조로선린협조의 뉴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관계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는 계기로 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로씨야련방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로씨야련방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9월 10일 오후 전용렬차로 평양을 출발하시였다.

김덕훈 내각총리를 비롯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간부들이 **김정은**원수님을 환송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환송나온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시였다.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간부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안녕과 해외방문성과를 축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수도시민들과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평안과 사업성과를 축원하시며 뜨거운 인사를 삼가 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타신 전용렬차는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간부들과 환송군중의 뜨거운 바래움을 받으며 출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로씨야련방의 국경역 하싼에 도착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9월 12일 새벽 로씨야련방의 국경도시 하싼에 도착하시였다.

조로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이에로 승화발전시키시기 위하여 로씨야련방을 공식방문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맞이하게 된 하싼역은 뜨거운 환영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현지시간으로 6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타신 전용렬차가 하싼역구내에 들어섰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렬차에서 내리시여 영접나온 간부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로씨야련방방문을 환영하는 의식이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로씨야련방무력 륙해공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로씨야련방무력 륙해공군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역사의 응접실에서 로씨야의 벗들과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로씨야의 중앙과 지방의 간부들은 **김정은**원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뿌찐대통령이 자기들을 국경역에 직접 파견하였다고 하면서 로씨야정부와 인민이 **김정은**원수님의 이번 방문이 의의있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최대의 성심을 다하고있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2019년에 이어 4년만에 또다시 로씨야를 방문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세계적인 공공보건사태이후 첫 해외방문으로 로씨야련방에로의 길에 오른것은 조로관계의 전략적중요성에 대한 우리 당과 정부의 중시립장을 보여주는 뚜렷한 표현으로 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알렉싼드르 꼬즐로브 로씨야자연부원생태학상이 기념으로 선물을 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로씨야간부들의 환송을 받으시며 방문지로 출발하시였다.

조로관계발전의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한 사변적계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워스또츠느이우주발사장에서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 로씨야련방 대통령과 력사적인 상봉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9월 13일 원동지역의 아무르주에 위치하고있는 워스또츠느이우주발사장에서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 로씨야련방 대통령과 력사적인 상봉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렬차에서 내리시자 로씨야련방무력 륙해공군명예위병대가 최대의 경의를 담아 정중히 영접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영접간부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 로씨야련방 대통령과의 접견을 위하여 상봉장소로 향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도착하시자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 로씨야련방 대통령이 따뜻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뿌찐대통령과 반갑게 상봉하시고 정깊은 인사를 나누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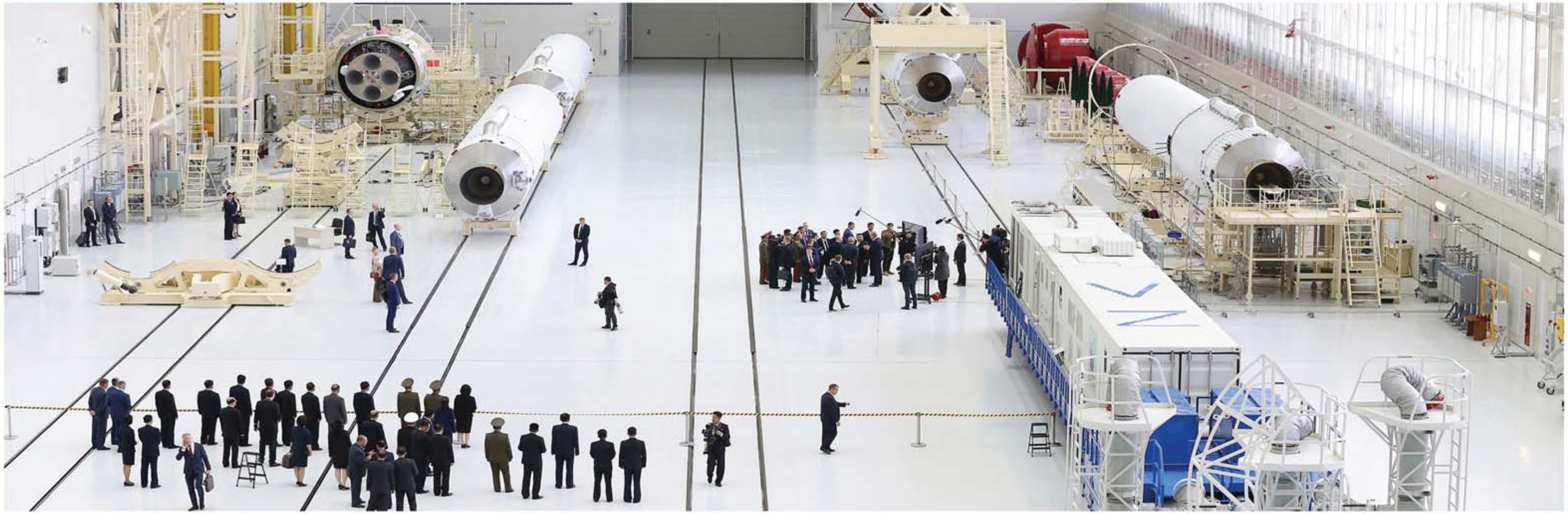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 로씨야련방 대통령과 함께 워스또츠느이우주발사장을 참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뿌찐대통령의 전략적인 우주개발구상에 따라 워스또츠느이우주발사장이 훌륭히 일떠서 귀중한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우주에로의 길을 개척한 강대한 로씨야의 숭고한 정신과 전통이 빛나게 계승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뿌찐대통령이 중요한 우주발사기지에 대한 성의있는 참관을 직접 조직하고 함께 동행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워스또츠느이우주발사장참관을 기념하여 방문록에 《첫 우주정복자들을 낳은 로씨야의 영광은 불멸할것이다. 김 정 은 2023. 9. 13》이라는 뜻깊은 친필을 남기시였다.

#ZaРоскосмос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 로씨야련방 대통령과 회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9월 13일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 로씨야련방 대통령과 회담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와 뿌찐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조로 두 나라 국기를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과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 로씨야련방 대통령사이의 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에서는 호상관심사로 되는 중요문제들에 대한 폭넓고 깊이있는 의견교환이 진행되였으며 공동의 노력으로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를 도모하고 종합적이며 건설적인 쌍무관계를 계속 확대해나갈데 대하여 합의되였다.

전원회담에 이어 **김정은**원수님과 뿌찐대통령사이의 단독회담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로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친선과 선린,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좋게 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조로수뇌분들께서는 강대한 국가건설의 전략적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방면에서 이룩되고있는 괄목할 성과와 건설적인 협조경험, 국가부흥과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를 위한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들을 나누시였다.

또한 인류의 자주성과 진보, 평화로운 삶을 침탈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위협과 도발, 강권과 전횡을 짓부시기 위한 공동전선에서 두 나라사이의 전략전술적협동을 더욱 긴밀히 하고 강력히 지지련대하면서 힘을 합쳐 국가의 주권과 발전리익,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국제적정의를 수호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들과 당면한 협조사항들을 허심탄회하게 토의하시였으며 만족한 합의와 견해일치를 보시였다.

회담은 시종 동지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환영하여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 로씨야련방 대통령이 연회를 마련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로씨야방문을 환영하여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 로씨야련방 대통령이 9월 13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 앞서 뿌찐대통령은 **김정은**원수님께 상봉기념으로 선물을 드리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하시고 자신께서 마련하신 선물을 뿌찐대통령에게 전해드리시였다.

연회에서는 뿌찐대통령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답례연설을 하시였다.

연회가 끝난 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뿌찐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할것을 정중히 초청하시였다.

뿌찐대통령은 초청을 쾌히 수락하면서 로조친선의 력사와 전통을 변함없이 이어갈 의지를 다시금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뿌찐대통령이 건강하여 강력한 로씨야 건설을 위한 중요하고 책임적인 사업에서 계속 훌륭한 성과를 이룩할것을 축원하시면서 뿌찐대통령과 뜨겁게 작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로씨야지도간부들과 로씨야련방무력 륙해공군명예위병대의 환송을 받으시며 다음방문지로 출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과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 로씨야련방 대통령사이의 력사적인 상봉과 회담은 전통적이며 전략적인 조로친선과 협조, 선린우호관계를 새로운 높이에로 가일층 강화발전시키고 반제자주위업수행을 위한 정의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한 사변적계기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유. 아. 가가린명칭 꼼쏘몰스크-나-아무레비행기공장을 참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로씨야련방 원동지역의 주요공업도시인 꼼쏘몰스크-나-아무레시에 도착하시여 유. 아. 가가린명칭 꼼쏘몰스크-나-아무레비행기공장을 참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9월 15일 아침 꼼쏘몰스크-나-아무레역에 도착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로씨야영접간부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유. 아. 가가린명칭 꼼쏘몰스크-나-아무레비행기공장으로 향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공장종업원들이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안고 뜨겁게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배인의 해설을 들으시며 설계연구소와 전투기동체조립직장, 비행기날개생산직장, 도장직장, 려객기조립직장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생산현장 곳곳에 모셔져있는 21년전 이 공장을 찾으시였던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사진문헌들을 보시면서 조로친선의 강화발전을 위해 불멸의 헌신과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빛나는 생애와 업적을 경건한 마음으로 추억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공장방문을 환영하여 유리 슬류싸리 로씨야항공생산련합체 총사장이 오찬을 마련하였다.

오찬이 끝난 후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방문록에 《로씨야항공기술의 급진하는 발전상과 거대한 축력을 체감하며 2023. 9. 15 김 정 은. 》이라는 친필을 남기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로씨야련방정부 부수상 겸 공업무역상과 하바롭스크변강행정장관, 로씨야항공생산련합체 총사장은 기념으로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을 떠나시기에 앞서 훌륭한 비행기교를 보여준 시험비행사를 만나 축하해주시고 《Су-35》전투기를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로씨야의 항공기술이 외부의 잠재적위협들을 압도하며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충심으로 되는 경의를 표하시고 공장의 앞으로의 발전성과를 축원하시였다.

로씨야 항공기술의
급진하는 발전상과
거대한 추력을 체감하며

2023. 9. 15

김정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로씨야련방 울라지보스또크시를 방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9월 16일 로씨야련방 울라지보스또크시를 방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울라지보스또크시방문의 첫 일정으로 크네비치군용비행장을 참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쇼이구 국방상과 반갑게 상봉하시고 정깊은 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영접나온 군지휘성원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각종 전략폭격기들과 다목적전투기, 추격기, 습격기를 비롯하여 로씨야공군이 장비하고있는 현대적인 군용비행기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쎄르게이 꼬빌라슈 장거리비행대사령관이 비행장을 방문해주신데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담아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어 태평양함대 기지를 방문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영접나온 해군지휘관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로씨야련방무력 륙해공군명예위병들과 태평양함대 명예위병들의 경의를 받으시며 프리게트함 《마르샬 샤뽀슈니꼬브》호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예브메노브 해군총사령관으로부터 함의 해상작전능력과 주요무장장비들, 전투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을 들으시며 종합지휘실과 조타실 등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태평양함대 장병들이 용감한 전투정신과 영웅성을 발휘하며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태평양함대참관을 기념하여 선물을 전하시고 방문록에 《정의와 평화를 지켜낸 승리의 항적은 영원할것이다. 태평양함대에 경의를 김정은 2023. 9. 16》이라는 뜻깊은 친필을 남기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태평양함대방문을 환영하여 쎄르게이 쇼이구 로씨야련방 국방상이 오찬을 마련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쎄르게이 쇼이구 국방상이 성의어린 선물을 드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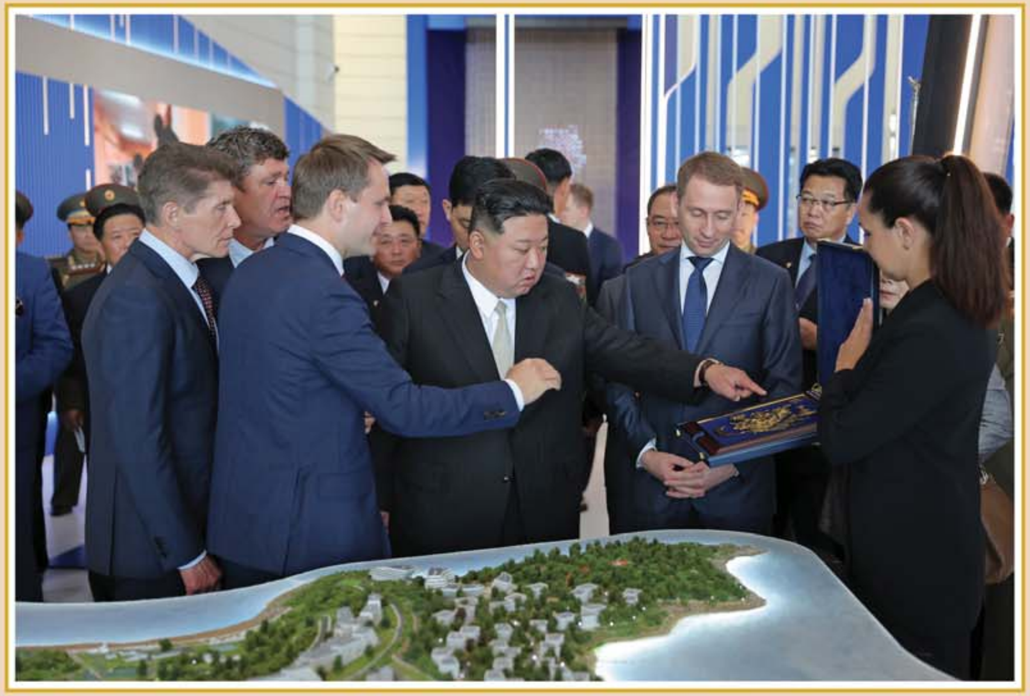
오찬이 끝난 후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쇼이구 국방상과 담화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날 저녁 울라지보스또크시민들과 함께 마리인스끼극장 연해변강분극장에서 발레극 《잠자는 숲의 미녀》를 관람하시였다.

로씨야인민에 대한 친선의 정을 안으시고 울라지보스또크시를 방문하신 **김정은**원수님께서 조로 두 나라 간부들과 함께 극장초대석에 나오시자 울라지보스또크시민들이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아름답고 우아한 예술적형상으로 발레무용의 감화력을 실감있게 보여준 공연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출연자들과 극장측에 깊은 사의를 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로씨야련방 울라지보스또크시의 여러 대상들을 참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9월 17일 원동련방종합대학, 연해변강수족관, 아르니까생물사료합성공장을 참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날 오전 원동련방종합대학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총장으로부터 대학의 규모와 교육체계, 앞으로의 발전계획과 그 전망에 대한 종합적인 해설을 들으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원동련방종합대학은 자신께서 뿌찐대통령과 처음으로 상봉한 곳이고 우리 류학생들이 있는 곳이여서 더욱더 친근해지는 대학이라고 하시면서 대학이 앞으로 더욱 훌륭한 발전을 이룩할것과 조로과학기술분야의 협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였다.

원동련방종합대학 총장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자기들의 대학에 모신것은 가장 큰 영광으로 된다고 하면서 **김정은**원수님께 대학방문을 기념하여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어 대학구내의 해변가에 전개된 전시관들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연해변강전시관과 공업무역성전시관을 참관하시면서 로씨야인민이 경제와 과학기술분야에서 이룩한 괄목할만한 성과들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원동련방종합대학에서 공부하고있는 우리 류학생들을 만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류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을 세심히 헤아려주시며 조국은 동무들의 학업성과를 바라고 기다린다고, 더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여 위대한 우리 국가의 륭성번영에 한몫 단단히 하는 유능한 과학기술인재, 혁명인재가 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류학생들에게 따뜻이 손저어주시며 작별인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어 연해변강수족관을 참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곱등어관에서 흰곱등어를 비롯한 바다동물들의 재주를 보아주시고 수족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울라지보스또크시방문을 환영하여 알렉싼드르 꼬즐로브 로씨야자연부원생태학상과 올레그 꼬줴먀꼬 연해변강행정장관이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서는 울라지보스또크시 예술인들의 환영공연이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연회가 끝난 후 신홍철대사와 조석철총령사, 총령사관 성원들을 만나시고 당의 대외정책을 받들고 해외에서 헌신적으로 사업하고있는 그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면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날 오후 아르니까생물사료합성공장을 참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에 대한 종합해설을 들으시고 여러 생산공정을 돌아보신 다음 회사간부들과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공장종업원들의 마음을 담아 게네랄로브총재가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방문을 기념하여 아르니까생물사료합성공장 유한책임회사 총재와 총사장, 연해변강행정장관과 뜻깊은 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울라지보스또크시방문을 마치시면서 로씨야의 중앙과 지방의 간부들이 친절하게 맞이하고 안내해준데 대하여 감사를 표하시였다.

АРНИКА
КОРМБИОСИНТ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로씨야련방에 대한 공식친선방문을 마치시고 귀로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로씨야련방에 대한 공식친선방문일정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9월 17일 울라지보스또크시를 출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로씨야련방에 대한 공식친선방문일정 마지막참관지인 울라지보스또크시에 연 2일간 체류하시면서 군사와 경제, 과학, 교육, 문화분야의 여러 대상을 참관하시였다.

조로관계의 강화발전사에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시고 귀로에 오르시는 **김정은**원수님을 환송하는 의식이 아르쫌－쁘리모르스끼1역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환송나온 로씨야의 중앙과 지방의 간부들과 작별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로씨야방문의 전기간 뿌찐대통령과 로씨야지도부와 인민들이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 가는 곳마다 극진히 환대해준데 대하여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시면서 로씨야의 번영과 인민들의 복리를 축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타신 전용렬차는 친근한 로씨야벗들의 바래움을 받으며 출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이번 로씨야련방에 대한 공식친선방문은 동지적우의와 전투적 단결에 뿌리를 두고있는 전통적인 조로선린협조의 뉴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관계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는 계기로 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에 도착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9월 19일 저녁 전용렬차로 수도 평양에 도착하시였다.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 오르신 원수님께서 안녕히 돌아오실 날만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려온 온 나라 인민들의 간절한 마음과 마음이 환희의 꽃바다를 이룬 평양역은 뜨거운 격정으로 끓어번지고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원수님께서 타신 전용렬차가 역구내에 들어서자 쌓이고쌓인 그리움이 열화같은 《만세!》의 환호성으로 터져올랐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렬차에서 내리시여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환영군중들은 외국방문의 길에 오르시여 국경을 넘으시는 시각에도 인민들의 평안과 사업성과를 축원해주시고 조국에 돌아오신 그 새벽에도 제일먼저 인민들에게 귀국인사를 보내주신 우리의 어버이를 목메여 우러르며 뜨겁게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환영하는 의식이 진행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원수님께 남녀어린이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였다.

당과 정부, 군부의 지도간부들은 조로친선의 강화발전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대외혁명활동을 벌리시고 안녕히 돌아오신 **김정은**원수님께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과 정부, 군부의 지도간부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고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따뜻이 손저어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6차 정치국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6차 정치국회의가 9월 20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시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김정은**원수님의 로씨야련방 공식친선방문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김성남 당중앙위원회 부장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씨야련방방문에 대한 귀환보고를 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김정은**원수님의 로씨야련방방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으며 해외방문성과를 열렬히 축하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정치국의 높은 평가에 깊은 사의를 표하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영예로운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나갈 굳은 의지를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방문성과를 공고히 다지기 위한 실천단계에서 전통적인 조로선린협조의 뉴대를 더욱 굳건히 하며 모든 분야에서 쌍무관계를 보다 활성화하고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해나갈데 대하여 포치하시면서 각 분야의 협조를 다방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조로 해당 부문들사이 긴밀한 접촉과 협동을 강화하여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진행하신 대외활동성과를 실천적으로,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기 위한 일련의 방도적문제들을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로씨야련방방문을 수행한 대표단성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9월 20일 로씨야련방방문을 수행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성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로씨야련방방문을 보좌해드린 무상의 영광을 안고 꿈만같은 행복의 시각을 맞이하게 된 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은 무한한 감격과 환희로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머나먼 외국방문의 나날 정력적인 대외활동과 초강도렬차집무로 로고의 낮과 밤을 이어오시며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김정은**원수님을 경건히 우러르며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로씨야방문을 성과적으로 보장한 대표단성원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김정은**원수님께 끝없는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면서 위대한 당중앙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본분과 책임을 다해갈 불같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가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안들이 토의되였다.

첫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둘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권리보장법을 심의채택함에 대하여

셋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개법을 심의채택함에 대하여

넷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을 심의채택함에 대하여

다섯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융부문 법집행정형총화에 대하여

여섯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함에 대하여

일곱째, 조직문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헌법개정에 대한 첫째 의정토의에 방청으로 참석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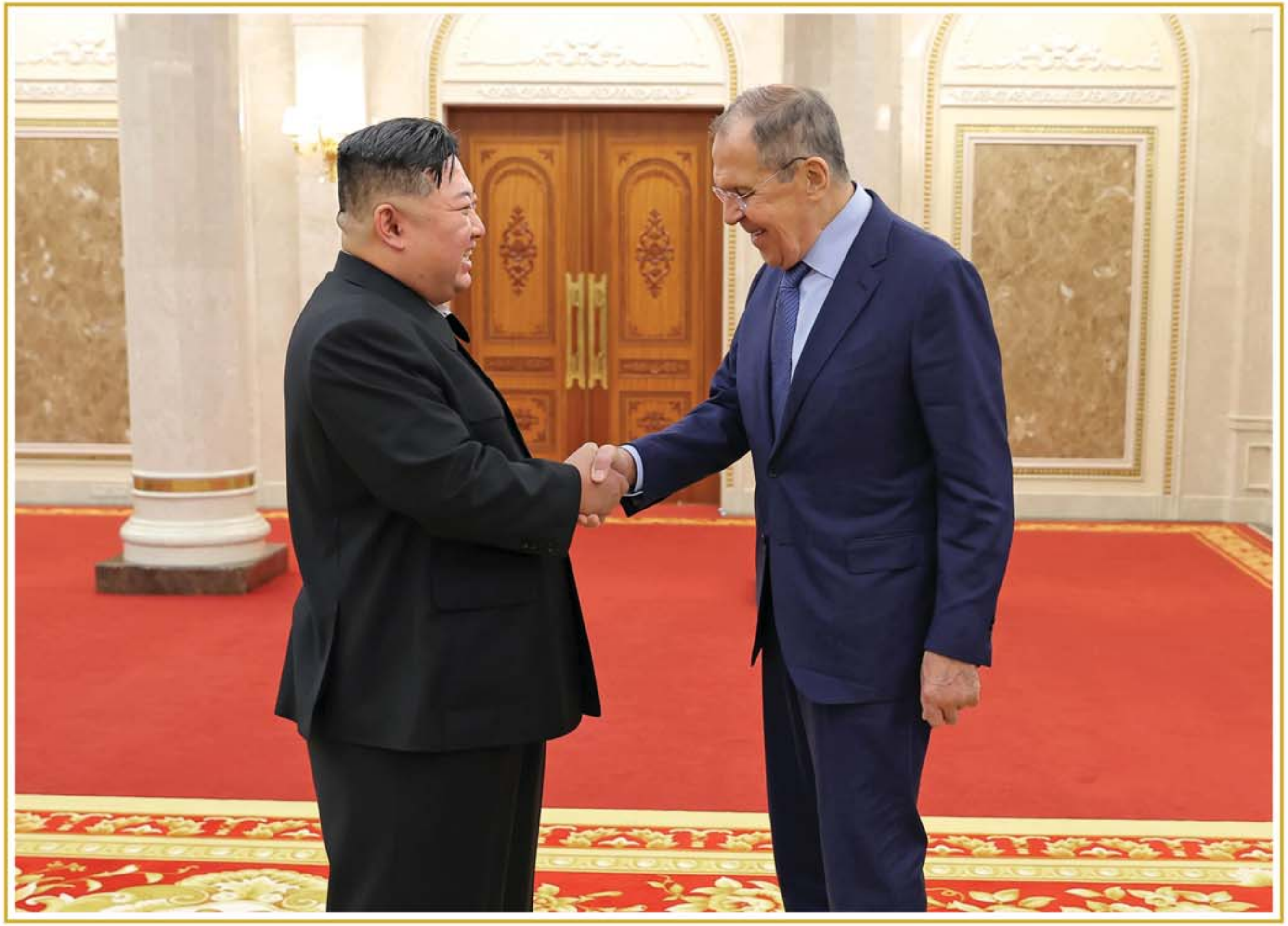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수행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맞이하고있는 우리 혁명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올해에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을 총화하시고 앞으로의 투쟁방향과 정책적과업들을 언명하시면서 얼마 남지 않은 년말까지 완강하고도 실속있는 투쟁으로써 2023년을 자랑찬 승리로 결속할데 대하여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뜻깊은 연설은 진정한 자주강국이며 참다운 인민의 정권인 우리 공화국의 불패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주체의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새로운 승리와 거창한 전진을 힘있게 추동하는 전투적기치, 위대한 혁명문헌으로 된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는 비범한 사상과 령도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강대성을 만방에 힘있게 떨쳐가는 위대한 당중앙을 일심전력으로 받들어 인민의 대표, 국정의 주인으로서의 중대한 책무를 다해나갈 참가자들의 혁명적자각과 열의속에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마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로씨야련방 외무상을 접견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0월 1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쎄르게이 라브로브 로씨야련방 외무상을 접견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쎄르게이 라브로브외무상과 반갑게 상봉하시고 외무상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며 동지적 우애의 정이 넘치는 담화를 나누시였다.

석상에서 쎄르게이 라브로브 로씨야련방 외무상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보내는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 로씨야련방 대통령의 따뜻한 인사를 정중히 전해드리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시고 뿌찐대통령과 형제적인 로씨야인민들에게 보내는 우리 당과 정부, 인민들의 정깊은 인사를 전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 9월 전통적인 조로친선의 력사에 괄목할 자욱을 새기며 워스또츠느이우주발사장에서 이루어진 뿌찐대통령과의 상봉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로수뇌회담에서 이룩된 합의들을 충실히 실현하여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시대 조로관계의 백년대계를 구축하고 그 위력으로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며 강대한 국가건설위업을 강력히 추동해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을 피력하시였다.

담화에서는 조로 두 나라가 굳건한 정치적 및 전략적신뢰관계에 토대하여 복잡다단한 지역 및 국제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가며 공동의 노력으로 모든 방면에서 쌍무적련계를 계획적으로 확대해나가는것을 비롯하여 호상관심사로 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이 교환되였으며 견해일치를 보았다.

담화는 시종 친선의 정이 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을 온 나라가 성대히 경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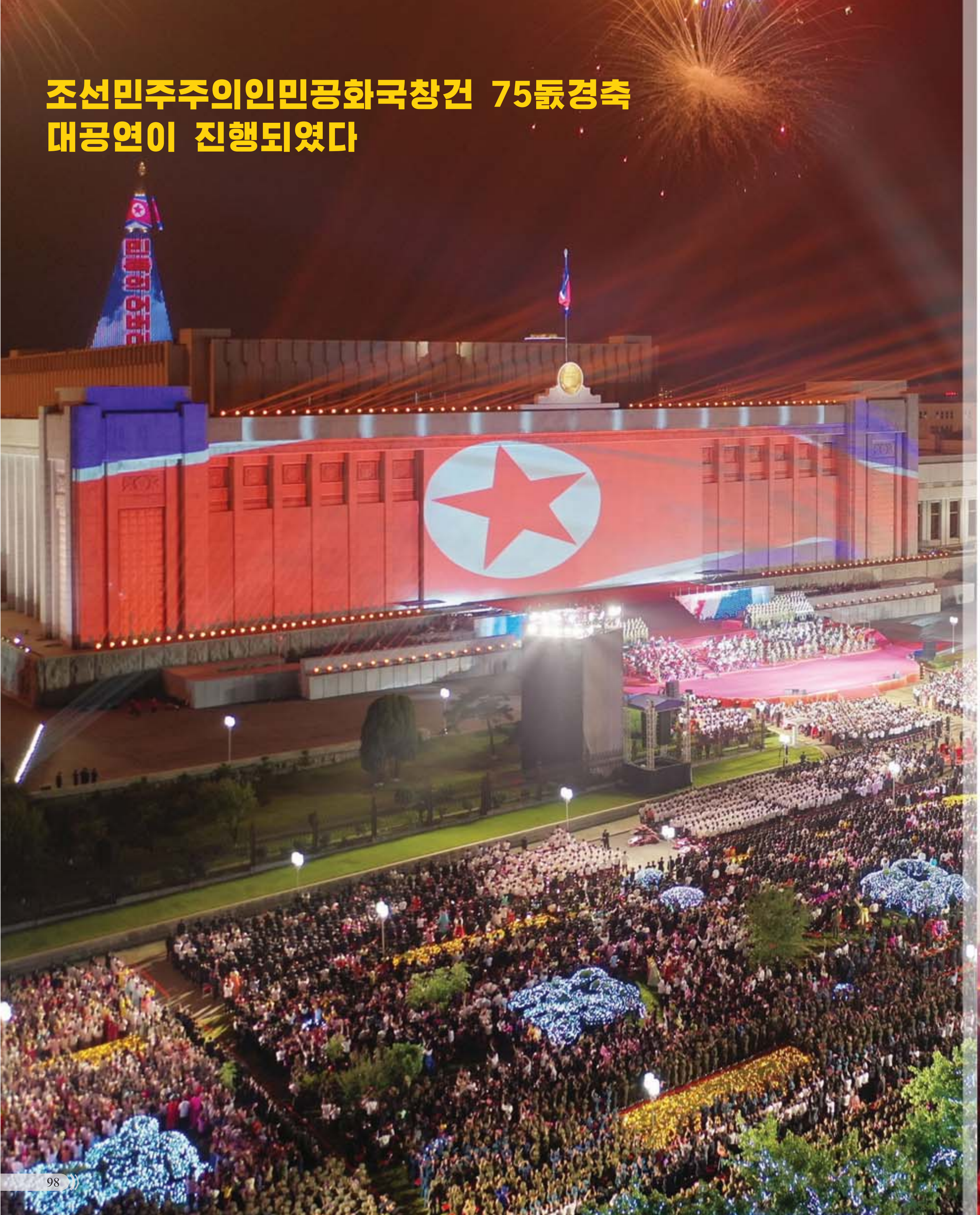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청년전위들의 홰불야회가 진행되였다

75돐

75
번영하여라 조국이여!

백두의혁명정신
새로운승리를향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대공연이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 경축연회가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을 전인민적명절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 경축행사참가자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에 즈음하여 대성산혁명렬사릉에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온 나라 인민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존엄높은 공화국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과 만수대언덕을 비롯하여 각지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 태양상, 절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찾은 각계층 근로자들은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으며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수도 평양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중앙사진전람회, 국가도서전람회, 중앙미술전시회 등이 개막되고 다채로운 경축모임들과 경축공연들이 진행되였다.

각지에서도 여러 전람회, 전시회들이 있었으며 청년들과 녀맹원들의 흥겨운 경축무도회가 펼쳐져 명절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김일성경기장에서는 대동강팀과 룡악산팀사이의 녀자축구경기가 진행되여 9월명절을 맞는 인민들에게 혁명적열정과 활력을 안겨주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을 뜻깊게 경축하는 온 나라 인민들은 고귀한 투쟁으로 지켜내고 떨쳐온 공화국의 존엄과 영예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끝없이 빛내이며 주체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앞당겨나갈 애국열의에 넘쳐있었다.

글 본사기자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평양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의 음악회가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국가도서전람회장을 찾은 각계층 근로자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중앙사진전람회장을 돌아보는 참관자들

국립연극극장에서 진행된 연극 《멸사복무》의 한 장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을 경축하여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이 펼쳐놓은 무도회

김일성경기장에서 대동강림과 룡악산림사이의 녀자축구경기가 진행되였다.

총련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을 맞으며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진정하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가 진행되였다.

총련중앙강연회에서 록화편집물 《우리의 애국가》를 시청하는 참가자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대공연 《우리의 국기》의 한 장면과 관람자들

조선로동당창건 78돐에 즈음하여

공화국에서 조선로동당창건 78돐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며 건설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온 나라 전체 인민은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김일성광장에서는 10월 10일 0시 국기게양식이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울려퍼지는 가운데 국기가 게양되고 형형색색의 축포탄들이 터져올라 수도의 밤하늘가에 아름다운 불야경을 펼치였다.

평양에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8돐경축 제4차 전국조각, 공예축전이 진행되였으며 공훈국가합창단과 왕재산예술단, 만수대예술단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경축공연과 평양시청년학생들의 야회 등이 있었다.

평안남도, 자강도, 남포시를 비롯한 각지에서도 다채로운 공연무대들이 펼쳐져 뜻깊은 10월명절을 맞이한 인민의 긍지와 환희를 더해주었다.

당일 평양체육관에서는 4.25팀과 압록강팀사이의 남자배구경기가 관람자들의 열기띤 응원과 격려속에 진행되였다.

위대한 어머니당의 창건일을 뜻깊게 경축하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절세위인들의 영원불멸할 당건설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위업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글 본사기자

조선로동당창건 78돐을 맞으며 **김일성**광장에서 국기게양식이 진행되였다.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찾은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조선로동당창건 78돐 경축공연의 한 장면

조선로동당창건 78돐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모임이 진행되였다.

종합교예공연과 평양시청년학생들의 야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여 명절의 분위기를 이채롭게 하였다.

뜻깊은 10월명절을 경축하여 축포탄들이 터져올라 수도의 밤하늘가에 불야경을 펼치였다.

애국의 구슬땀이 안아온 풍요한 농사작황

온 나라 방방곡곡에 풍요한 농사작황이 펼쳐져 사람들 누구나가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있다.

서해곡창은 물론 침수되였던 안변군 오계농장과 월랑농장의 논들에서도, 지난 시기 저수확지로 알려졌던 포전들, 개간한 새땅에서까지 다수확을 내다보고있다.

이 땅 어디 가나 펼쳐진 기적과도 같은 현실,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부푸는 풍요한 전야를 보며 사람들은 무엇때문에 그처럼 기뻐하는가.

농사가 례년에 없이 잘되였다는 그것때문만이 아니다. 이 땅에 생을 둔 사람들 누구나 나라일에 발벗고나설 때 그 어떤 난관속에서도 자랑찬 기적을 안아올수 있다는 소중한 진리가 다시금 가슴마다에 사무쳐오기때문이다.

하기에 사람들은 누구나 한목소리로 이야기한다.

이 작황은 결코 하늘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라 온 한해 농사문제를 풀기 위하여 헌신과 로고의 자욱을 새겨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기치따라 온 나라 인민모두가 농사의 주인이 되여 사회주의전야에 깨끗한 량심과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온 결과라고.

글 리대성

봄내 여름내 애써 가꾸어온 벼포기들이 큰물에 잠겼던 그때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풍요한 가을을 맞이한 안변군의 피해지역 농업근로자들은 가슴속에 고패치는 격정을 세상에 전하고저 《복받은 대지》라는 글발을 전야에 크게 새기였다.

너도나도 발명가, 창의고안명수로

— 김정숙평양방직공장 —

올해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종업원들이 수여받은 과학기술성과도입증과 발명증서, 창의고안증서는 근 100건.

이 하나의 수자만 놓고도 공장에서 과학기술을 얼마나 중시하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공장에는 10여건의 발명을 하여 설비들의 만가동과 제품질제고에 기여한 견방종합직장의 로동자를 비롯하여 발명가, 창의고안명수로 불리우는 종업원들이 많다.

이들은 언제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짬만 있으면 학습하며 늘 공장의 생산과 발전에 하나라도 이바지하기 위해 사색하고 탐구한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과학기술보급실에서 지식의 탑을 하나하나 쌓아간다.

이 과정에 이들이 내놓은 가치있는 발명과 창의고안들은 공장의 생산장성에 적극 이바지되고있다.

자기의 창의고안이 현실에 도입되여 은을 내는것을 보면 공장을 위해, 집단을 위해 무엇인가 이바지하고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해진다는 한 종업원의 이 말속에서 공장의 발명가, 창의고안명수들의 소박하면서도 진실하고 열정적인 마음들을 엿볼수 있다. 과학기술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공장의 현실은 과학기술을 떠나 일터에 대한 애착과 애국에 대해 말할수 없으며 과학기술의 주인이 될 때만이 애국의 자욱을 뚜렷이 새겨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진 리춘송, 글 윤금철

공장에서는 올해만도 견방종합직장 로동자가 새로 발명한 수압직기조종기판 회로를 비롯한 근 100건의 창의고안과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받아들여 제품의 질과 생산성을 더욱 높이였다.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황금나락》식료품

— 광복금강산식료공장 —

제품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해 진지한 토의를 하고있는 공장일군들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은 손님들속에서 인기를 끌고있다.

요즘 광복금강산식료공장에서 생산하는 《황금나락》상표를 단 식료품들이 사람들속에서 인기를 모으고있다.

맛이 좋고 그 질이 높기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즉석국수와 빵, 과자, 음료, 고기가공품을 비롯한 120여가지에 달하는 생산품들이 창고에 쌓여볼새도 없이 출하된다고 한다.

조업한지 불과 3년밖에 안되고 부지면적도 작은 이 공장이 이름있는 식료공장들과 어깨를 겨루는것은 이곳 종업원들의 야심찬 노력과 인민에 대한 참된 복무정신이 안아온 결과이다.

공장의 종업원들은 제품의 질은 과학기술에 의하여 담보된다는것을 인식하고 창의고안과 앞선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리였다. 생산능률을 높이기 위해 설비들을 개조하고 원료배합으로부터 발효, 구이, 포장에 이르기까지의 생산공정들에서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였다.

한편 상업봉사망들에 나가 자기들이 만든 제품에 대한 인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을 제품에 반영하는 사업도 중시하였다.

노력의 땀방울은 풍성한 열매를 안아오기마련이다.

급속한 발전을 이룬 공장의 생산품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상품전시회와 인민소비품전시회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황금나락》식료품은 저마다 즐겨 찾는 명상품으로 되였다.

지금 공장의 종업원들은 인민들의 믿음과 기대를 깊이 새겨안고 《황금나락》식료품의 질을 더욱 높여나가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사진 최광혁, 글 윤금철

120여가지나 되는 《황금나락》식료품들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는 공장의 생산자들

가을철녀성옷을 계절적특성에 맞게

— 대성구역종합양복점 대성양복점 —

대성구역종합양복점 대성양복점은 크지 않은 양복점이다.

그러나 이들이 내놓은 흰띠장식 나뉜옷, 검은띠장식 조끼치마양복 등 특색있는 새형의 녀성옷들은 《봄철녀성옷전시회—2023》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요즘 많은 녀성들이 이곳으로 찾아오고있다.

가을철녀성옷을 계절적특성에 맞으면서도 고상하고 아름답게 만들고있다는 소문때문이다.

실지 양복점에 전시된 각종 녀성옷들은 우아하며 세련미가 살아나는 여러가지 형태와 색갈로 하여 대번에 손님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풀색바탕에 연한색의 상침을 놓아 독특한 미를 살리고 어깨절개선과 몸매를 살린 양복이며 흰색웃옷의 깃과 주머니에 배색을 주어 주름치마로 된 달린옷과 함께 입을수 있게 만든 가을옷…

날로 높아가는 우리 녀성들의 지향과 요구에 따라서자면 도식적인 도안창작과 설계에서 벗어나 부단히 새로운것을 창조해나가야 한다는것이 이곳 종업원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하여 재단사들은 손님들과 옷색갈이며 형태를 충분히 합의한데 기초하여 몸재기를 세심하게 진행하는 한편 자기의 옷을 만드는 심정으로 설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으며 재봉공들은 뜸수조절과 같은 재봉기술과 깃, 소매, 주머니가공을 비롯한 여러가지 옷가공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세련미를 더욱 돋구고있다.

가을이 짙어갈수록 대성양복점을 찾는 녀성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있다.

사진 최광혁, 글 장윤정

녀성피복전시회들에서 수여받은 상장들

녀성들의 나이와 몸매, 기호에 맞으면서도 시대적 미감과 민족적인 형식이 잘 살아나고 가을계절에 어울리는 독특하면서도 우아한 옷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애쓰는 재단사, 재봉공들

내 사랑하는 평양의 가을은 좋아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나게 장식할 일념으로 충만된 수도의 거리에 아름다운 단풍계절이 찾아왔다.

꽃이 피고 록음우거졌던 평양의 봄, 여름도 아름답지만 사람들에게 깊은 정서와 끝없는 열정을 안겨주는 평양의 가을은 또 얼마나 이채로운가.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충의지심을 다해 가장 열렬하게, 가장 견결하게, 가장 뜨겁게 받들어갈 열망이 잎새마다에 어리였는가 수도의 거리가 황금빛, 붉은빛으로 더욱 진하게 물들어간다.

사진, 글 장창욱

기쁨과 랑만이 출렁, 즐거움과 희망이 두둥실

사회주의번화가인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를 비롯한 현대적인 건축물들을 감돌며 흐르는 평양의 보통강에 새 풍경이 펼쳐져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고있다.

새로 건조한 멋쟁이유람선들이 보통강의 푸른 물결을 헤가르며 유유히 오가는것이다.

선실과 갑판, 봉사시설 등 모든 요소들이 흠잡을데 없는 현대적인 유람선들은 화려한 옷차림의 유람객들과 어울려 마치 물우에 떠가는 아름다운 꽃송이를 방불케 한다.

봉사원들의 친절한 봉사속에 경루동의 맞은편 기슭에서부터 평양체육관과 빙상관, 청류관을 지나 평양시체육촌까지 오르내리며 주변의 경치를 감상하고난 유람객들은 옛말로만 들어오던 신선이 된듯싶다며 희열에 넘쳐 이야기한다.

보통강에 펼쳐진 새 풍경.

정녕 인민의 모든 꿈을 눈부신 현실로 꽃피우며 하루가 다르게 약동하고 전진하는 내 조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비낀 아름다운 화폭이 아닐수 없다.

사진 최광혁, 글 장윤정

내 나이 일흔살이 넘었지만 이렇게 화려한 유람선에 올라 나날이 몰라보게 전변되는 보통강반의 아름다운 풍치를 바라보니 마음이 젊어지고 《세월이야 가보라지》의 노래가 절로 흘러나옵니다.

- 보통강구역 서장동 주민 -

태권도강국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친 장한 아들딸들

— 제22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나라별종합순위에서 제1위를 쟁취한 태권도선수들 —

제22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나라별종합순위에서 제1위를 쟁취

까자흐스딴의 아스따나에서 진행된 제22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나라별종합순위에서 영예의 제1위를 하여 태권도강국의 위용을 또다시 힘있게 과시하였다.

이번 선수권대회에는 우리 나라와 로씨야, 몽골, 그리스, 아르헨띠나, 남아프리카를 비롯한 60여개의 나라와 지역의 우수한 남, 녀태권도선수 860여명이 참가하였다.

우리 선수들은 성인부류와 청년, 로장부류경기들에 참가하여 금메달 64개와 종합우승컵, 개인기술상 5개를 포함한 31개의 컵을 획득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조국의 존엄과 기상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높이 떨친 태권도선수들의 경기성과는 부강조국건설에 떨쳐나선 공화국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적힘을 안겨주고 있다.

글 장윤정

이번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리는 영웅조선의 불굴의 정신과 필승의 신념,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경기를 진행하여 태권도모국의 영예를 만방에 떨치였다.

앞으로 훈련을 맹렬히 하여 세계무대에 우리의 람홍색공화국기발을 더 높이 휘날리겠다.

선수 김유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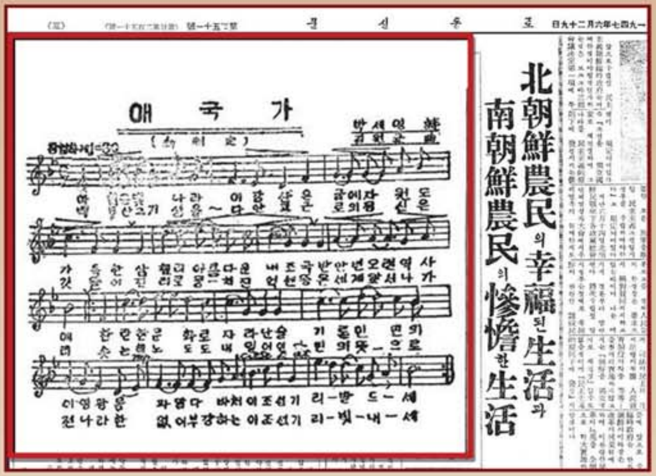
제22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우리 선수들의 경기중에서

조국의 존엄과 기상을 온 세상에 떨칠 일념 안고 훈련에 열중하는 태권도선수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김원균선생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를 창작한 조선의 음악대가

– 전 조선음악가동맹 중앙위원회 고문 김원균 –



로동신문

애국가

北朝鮮農民의幸福된生活과

南朝鮮農民의慘憺한生活

김원균선생이 창작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실린 당시의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태여나기까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주체35(1946)년 9월 어느날 작가들을 만나주시고 하루빨리 《애국가》를 창작할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주시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곡을 완성할데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곡의 선률을 무게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애국가》를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스스로 고상해지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보이는것같이 마음을 틀어잡도록 해야 한다고, 그러자면 인민들이 부르기 쉽게, 인민들의 사상감정에 맞게 곡의 선률을 장중하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그리고 맑고 아름다운 조선선률이 잘 나타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광범한 군중이 참가하여 짧은 기간에 창작된 1 000여편에 달하는 곡들중에서 엄격한 합평회를 거쳐 당선된 두편의 곡을 놓고 주체36(1947)년 6월 27일 시청회가 열리였다. 공화국의 국가를 선정하는 뜻깊은 모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참석하시였다.

노래들을 주의깊게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첫번째 노래를 한번 더 연주하게 하시고는 두번째 노래도 한번 더 들어보자고 하시였다. 두곡을 거듭 들으신 수령님께서는 선정된 두 노래가 다 좋다고, 두 노래중에서 먼저 들은 노래가 더 마음에 든다고, 선률이 장중하고 무게가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 첫번째 곡이 바로 김원균선생이 작곡한 노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친필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를 창작한 김원균선생.

후날에는 **김일성**상계관인, **김일성**훈장수훈자, 로력영웅,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인민예술가로, 인생의 말년에는 조선음악가동맹 중앙위원회 고문, 유네스코국제음악리사회 명예위원으로 세계에 명성을 떨친 저명한 활동가였지만 해방전 김원균선생은 불우한 식민지청년, 막벌이군에 불과했다.

일제통치의 암담한 시기에 원산시의 가난한 가정에서 출생한 선생은 해방후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 안겨서야 보람찬 음악창작의 길을 걷게 되였다.

선생은 평양공설운동장(당시)에서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을 우러러 만장에 열광한 인민들의 감격과 환희를 불멸의 혁명송가의 선률에 담아 온 나라가 아는 작곡가가 되였다.

그후 선생은 미구하여 창건되게 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창작사업에 망라되였다. 선생은 크나큰 흥분속에 활화산같이 터져오른 인민들의 해방의 기쁨과 부강한 조국을 건설하려는 비상한 열의를 오선지에 담아갔다. 밤새워 썼다가는 지우고 그리고는 또 쓰고…

주체36(1947)년 6월 뜻깊은 시청회에 참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원균선생이 작곡한 노래를 《애국가》로 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국가를 작곡한 공로로 김원균선생은 공화국의 첫 공로메달을 수여받았다.

선생은 새 조국건설시기에는 애국에 불타는 열정으로 《조선행진곡》, 《조선청년행진곡》을 비롯한 혁명적인 노래들을 작곡하였으며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강철의 대오는 전진한다》와 같은 전시가요들을, 전후시기에는 《우리는 천리마타고 달린다》 등 수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선생은 다년간 문학예술부문의 책임적인 위치에서 주체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그의 공로를 잊지 않으시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시였다.

우리 인민들의 심장마다에 숭엄이 새겨져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

장중하면서도 맑고 아름다운 우리 국가의 선률과 더불어 김원균선생의 이름은 조선의 음악대가, 세계적인 음악가로 오늘도 우리 인민들속에 자랑스럽게 전해지고있다.

글 리평강

작곡가 김원균생일 100돐 기념음악회가 진행되였다.

창작활동을 벌리던 때의 김원균선생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에 세워진 김원균선생의 반신상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라 소리높이 구가한 열정의 시인

— 전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김철 —

김철선생의 시집과 작품집들의 일부

서정시 《어머니》와 더불어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시인 김철선생.

1933년 12월 함경북도 화대군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여난 그는 모진 가난속에서 자랐다.

해방후 공화국의 품속에서 시인이 될 희망을 안고 대학으로 가려던 그의 꿈은 미제가 일으킨 침략전쟁으로 하여 이루어질수 없었다.

군복을 입고 조국보위성전에 용약 나선 그는 미제침략자들과의 가렬처절한 전투속에서도 《**김일성**장군님께》, 《용서하시라》를 비롯한 수십편의 시를 창작하여 인민군용사들을 전쟁승리에로 힘있게 고무하였다.

전후 작가학원(당시)을 졸업하고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시인이 된 그는 시 《송가》,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다》 등 150여편을 창작하여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에 떨쳐나선 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그는 1981년 조선로동당에 대한 온 나라 인민의 한결같은 신뢰심을 담은 서정시 《어머니》를 내놓아 우리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시인이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김철동무와 같은 훌륭한 시인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자랑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였다.

그는 이후시기에도 창작활동을 활발히 벌려 어머니 우리 당을 노래하는 많은 시들을 내놓았다.

생의 전 기간 500여편의 시들을 창작한 그는 1992년 **김일성**상을 수여받는 영광을 지니였다.

불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천만자식들을 품에 안아 키워주고 보살펴주는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라고 격조높이 구가한 김철선생의 이름은 서정시 《어머니》와 함께 우리 인민들속에 오늘도 친근하게 불리워지고있다.

사진 장창욱, 글 리평강

창작활동시기의 김철선생

수기

어머니없이 우린 못살아

우리 인민모두가 어머니라 부르며 따르는 조선로동당.

어머니, 정겹고 숭엄한 그 부름을 조용히 뇌이느라면 40여년전의 잊지 못할 그날이 떠오르군 한다.

추녀밑의 고드름이 동지달 강추위에 익어가던 깊은 밤 당시 중학교학생이였던 내가 인기척에 눈을 떠보니 아버지의 두볼은 눈물에 젖어있었다.

아버지가 마주한 앉은뱅이책상우에 포개진 원고지들.

《아버진 방금전까지 어머니생각을 했구나.》

(어머니?)

나에게는 할머니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선에서 용감히 싸운 아버지가 전승의 기쁨 안고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집에 없었다. 나쁜 놈들의 꾀임에 넘어가 적들을 따라갔던것이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할머니라는 부름을 거의나 잊고 살아왔다. 그런데 어머니라니?!

그 다음해인 1981년 2월 16일에야 나는 그때 아버지의 심중속에 과연 무엇이 끓고있었는가를 알게 되였다.

2월의 따스한 봄볕이 아롱진 광부사택의 나지막한 책상우에 놓인 《만경대》 라지오에서는 한편의 시가 울려나오고있었다.

내 이제는 다 자란
아이들을 거느리고
어느덧 귀밑머리 희여졌건만
…

차분히 속삭이다가도 한없이 숭엄한 감정에로 이끌고 나중에는 응축되였던 감정을 활화산마냥 터치는 방송원의 격정에 넘친 목소리.

…
아, 나의 생명의 시작도 끝도
그 품에만 있는 조선로동당이여
…
그대 정겨운 시선, 살뜰한 손길에 몸을 맡기고
나는 영원히 아이적 목소리로 부르고부르리라—
어머니! 어머니없이 나는 못살아!

분명 그것이였다. 동지날의 그밤 아버지가 한자두자 눈물을 머금고 쓴 서정시 《어머니》였다.

라지오에서 울리는 그 절절한 부름이 어디에선가 아들을 찾는 어머니의 목소리인듯, 그 손길을 놓치면 영영 생의 명줄이 끊길것만 같아 온 가족이 라지오를 부여잡고 오열했다.

아버지가 심장을 터쳐 찾고 부른 어머니!

자식에게 젖조차 변변히 먹여줄수 없었던 북방어촌의 시골아낙네가 결코 아니였다. 낳아키운 자식마저 버리고 떠나간 그런 녀인은 더더욱 아니였다.

그 어머니는 마음속에 그늘을 안고 살던 한 청년을 따스히 안아 재능있는 시인으로 키워준 자애로운 품, 수천만 아들딸들을 붉은 기폭에 휩싸안아 어엿한 혁명가로 키워주는 존엄높은 조선로동당 —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의 품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계에는 당도 많고 시인도 많지만 그 어느 나라에도 김철동무처럼 당을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다 맡아주는 어머니로 절절히 노래한 시인은 없다고 하시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주시였다. 림종의 시각에는 우리가 그에게 줄수 있는것이란 과연 무엇이겠는가를 안타까이 뇌이시며 서정시 《어머니》를 특호활자로 《로동신문》 상단에 크게 싣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당을 어머니로 믿고 따르며 충성다해 받들어가는 우리 인민들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노래한 서정시 《어머니》는 수십년세월을 이어 오늘도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고야마는 조선로동당에 대한 다함없는 송가로, 떨어져 살수 없는 위대한 어머니당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 애국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드팀없는 신념의 웨침이 되여 조국강산에 울려퍼지고있다.

— 김선화(김철선생의 딸) —

이것이 《한미동맹》의 실체이다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하던 미제침략군이 장갑차로 깔아 무참히 학살한 두 녀중학생

《한미호상방위조약》이 조작된 때로부터 70년이 되였다.

지금 윤석열역적패당은 입만 벌리면 《한미동맹》을 《혈맹》, 《가치동맹》, 《가장 성공한 동맹》이라고 요란스레 떠들어대고있다.

하지만 력사적사실들은 《한미동맹》이야말로 가장 철저한 예속동맹, 가장 위험천만한 전쟁동맹이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괴뢰지역에 주둔한 미군이 치외법권적인 특권을 누리며 저지른 치떨리는 살륙과 만행은 《한미동맹》이란 지배와 굴종, 예속의 관계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1957년 군산소녀총격사건과 인천송유관어린이사살사건, 1962년 파주나무군사살사건, 1992년 윤금이살해사건, 2002년 신효순, 심미선학살사건 등 야만적인 살륙만행을 수없이 저지르고도 미군은 아무러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역적패당이 념불처럼 외워대는 《가장 성공한 동맹》의 실상이다.

미국은 괴뢰들을 저들의 손아귀에 더욱 바싹 거머쥐고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에 적극 내몰고있다.

최근에만도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공화국의 엄숙한 경고와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과 배격에도 불구하고 반공화국핵전쟁연습인 《을지 프리덤 쉴드》를 광란적으로 벌리였다.

《힘에 의한 평화》와 《힘에 의한 안보》를 제창하면서 공화국을 《선제타격》하겠다고 허세를 부리는 괴뢰호전광들과 그를 부추기는 미국의 무모한 망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는 위험천만한 전쟁상황에로 치닫고있으며 괴뢰지역에서 《안보》불안은 날로 고조되고있다.

괴뢰역적패당이 제아무리 미사려구를 늘어놓아도 굴종과 예속, 재앙으로 얼룩진 《한미동맹》의 실체는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하기에 괴뢰지역의 각계층은 《한미동맹해체!》, 《윤석열퇴진!》 등의 구호를 웨치며 반미, 윤석열역도퇴진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글 리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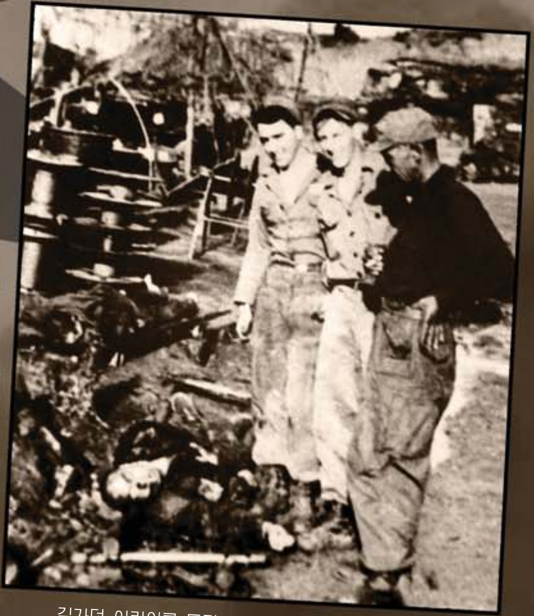
군사분계선말뚝앞에 거만하게 서있는 미제침략군

녀성의 입을 틀어막고 강제삭발하는 미제침략군

미제침략군의 《사격훈련목표》가 되여 목숨을 잃은 괴뢰지역 주민들

30M의 至近거리서 머리등에 散彈12알

← 미제침략군이 쏜 10여발의 총탄이 박힌 어린 소년의 머리



길가던 어린이를 도적으로 몰아 학살한 미제살인귀들

어지러워져만가는 世相

人命은 파리 만도못한것인가

少年들에게 獵銃發射

한명은 銃알 투성이

金浦서 美兵이 殘虐한 行動

美軍이 또 총질

美軍이 行人을 亂刺

미제야수들의 만행을 폭로한 괴뢰출판물들

현장고발

주한미군의 윤금이 살해와 국교생 3명 추행사건

1

한 녀성을 무참히 살해한 미제침략군의 만행을 폭로한 당시 괴뢰출판물

무고한 청년학생을 때려눕힌 미제침략군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하고있는 미제침략군

윤석열역도의 친미사대굴종행위를 풍자한 만화

괴뢰 전 지역에서 미군철수와 사대매국노, 전쟁광 윤석열역도퇴진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투쟁이 더욱 고조되고있다.

개천절행사 진행

개천절행사가 10월 3일 단군릉앞에서 진행되였다.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안의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먼저 단군제가 있었다.

리명철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민족의 원시조를 찾아 반만년의 민족사를 주체적립장에서 옳바로 정립해주시고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빛내여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라고 칭송하였다.

우리 민족의 반만년력사와 귀중한 민족유산들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보금자리인 사랑하는 조국과 운명을 하나로 잇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부국강병의 대업을 실현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애국운동에 총궐기하여야 하며 자립의 창조정신, 창조본때로 민족사를 빛내이는 성과들을 달성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사진 장창욱

낸곳: 통일화보사　주소: 평양시 중구역 련화2동
사서함: 조선 평양 국제우편국 사서함 150

루계 418

ㄱ-1642ㄷ

ISSN2305 8544